

이육사의 「절정(絶頂)」과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의미

권영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일오(一梧) 정한숙(鄭漢淑) 선생께서 생존에 계실 때의 일이다. 선생께서 관악 캠퍼스로 논문 심사를 하러 오셨다. 약속 시간보다 좀 이르게 도착하신 선생이 내 연구실에 들르셨다. 내가 차 한잔을 대접해 드렸더니, 내 서가를 이리저리 둘러보시던 선생께서 갑자기 이육사의 시집을 보자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서가에 꽂혀 있던 육사 시집을 내놓았다. 선생은 그 시집을 펼쳐 몇 장을 넘기면서 육사의 시 「절정」을 단숨에 읊고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마지막 구절을 말야,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하고 물으셨다. 나는 황망하여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신동욱 교수의 논문과 김종길 교수의 논문을 떠올려 그 비유의 특이성을 지적하였다. 그러자 선생께서 크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문제야. 시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시를 너무나 시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거든. 시도 일상적인 언어의 산물인데 그 일상 언어의 의미를 뛰어넘으려고만 해. 그 따위 작위적인 시적 해석은 모두 집어치우라고’ 나는 선생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시는지를 헤아리지 못했다. 선생은 스스로 아주 비시적(非詩的)이고도 산문적인 해석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당신 고향 사람들의 사투리까지 거론하면서 ‘강철로 된 무지개’를 ‘씻덩어리로 만든 물지개’라고 하였고, 짙어지고 다니기 어

려운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까지 덧붙이셨다. 나는 그때 '물지게'를 '무지게'라고도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었지만, 선생의 해석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선생은 나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바로 나를 이렇게 나무라셨다. '자네도 그러한 시적 해석에만 관심을 두는 구면, 문학의 언어를 지나치게 신비화하는 것도 병이야,' 나는 선생의 이 말씀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2.

이육사의 시를 보면 시적 정서의 절제가 곧바로 시적 어조의 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 정신의 초월성은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 의지와 함께 삶의 현실 속에 더욱 절실하게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의지를 끝내 버리지 않았으며 북경의 감옥에서 목숨을 거두게 될 때까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육사에 있어서 그 저항적 행동은 개인적 의지의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그 참담한 현실의 극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기도 하다. 식민지 시대의 모든 현실적 조건이 이 시인의 삶과 그 정신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육사의 시에서 널리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인식과 그 정신적 초연성은 그가 보여준 현실에서의 실천적 행동과는 대조적인 일면도 있다. 신념에 가까운 고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의 시는 절제와 균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현실 체험의 공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광야」에서도 시적 자아가 자리잡고 있는 그 정신의 의연함을 고절의식(孤絶意識)이란 말로 흔히 지적하고 있다. 시인 이육사가 식민지 현실에서 시를 통해 도달할 수 있었던 자기확인의 과정은 결국 고통의 현실에 대한 정신적 초월의 의지로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매운 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춤내 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곳 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문장』 1940. 1)

시 「절정(絶頂)」에서 우리는 대상으로서의 현실과 주체로서의 자아의 날카로운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시적 자아가 자리잡고 있는 현실은 상황의 극한에 도달하여 있기 때문에 〈한발 재겨 디딜〉 여유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쫓겨온 자아가 그 생존의 가능성조차도 가능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그 순간 일체의 행위가 거부되고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없는 자기 확인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여기서의 자기 확인이란 절박한 상황에 대한 자기 초월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비극적인 절정의 순간에 과연 〈눈감아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정신의 초월성이 이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에 있다. 이 구절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나는 시 「절정」을 읽을 적마다 일오 선생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해석해 온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가 정말로 지나치게 언어의 시적 해석에만 얽매었던 것은 아닌지 고심하고 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이 엄청난 비유는 어떤 해석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3.

이육사의 시 「절정」에 대해 가장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는 신동욱 교수의 해설을 먼저 보기로 하자.

“이 작품의 화자는 혹독한 일제의 힘에 밀려서 ‘북방’으로 밀려간다고 상황을 제시한다. 첫 행에서는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감각화되어 ‘휩쓸려오는’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제2연에서 이 이상은 더 갈 수 없는 극한적 상태를 제시한다. 고원의 칼날진 벼랑끝에서 쫓겨온 시의 화자는 급박하고도 위급한 처지를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화자는 더 이상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므로 ‘눈감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행동은 중단되고 사고 작용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표명한다. 이러한 표명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행동의 끝이 나타나 있고, 그런 다음에 심리적 상태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나 보다’와 같이 천명하고 있다(중략).

이 시인은 시의 화자로 하여금 ‘겨울’은 ‘강철’로 만들어진 ‘무지개’인가 보다고 진술한다. 이 진술은 무엇을 뜻하는가. 겨울은 작품이 설정하고 있는바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이고, 이 작품의 화자가 쫓김을 당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즉 대립적 적대관계이다. 그런데 ‘강철’로 만들어진 ‘무지개’라는 인식은 거의 움직일 수 없이 견고한 적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도 하겠다. 뜨거운 고열이 아니면 도저히 녹일 수 없는 ‘강철’로 인식되어 있는 데서 계절이 담고 있는 속뜻을 알 수 있다. 작품이 전개에서 나타난 대로 ‘채찍’은 계절의 채찍이므로 고열로도 녹일 수 없는 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절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작품의 화자가 대결하여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계절’인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운행 원리에 의하여 적어도 태양계의 운행 원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풀이한다면 ‘채찍’으로 예각화된 제국주의 일본의 힘은 계절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세계적으로 풍미했던 파시즘의 계절이라는 인식이 육사의 현실 인식의 윤곽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주의의 계절적 풍미를 한 시인이 대적할 때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육사의 ‘강철로 된 무지개’가 뜻하는 의미가 풀릴 것 같다. 무지개는 흔히 우리에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상 현상의 하나이다. 이 기적과 같은 아름다움의 인식은 목숨을 바쳐서 싸워

야 할 대상을 이제까지는 쫓기기만 했지만, 그것을 결연히 정면으로 맞이하는 비상한 받아들임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승리를 다짐하는 비약적 결단인 것이다. 이 비상한 결단 앞에서 적은 이제 무서운 존재도 아니다. 이 과업은 또 시인 개인의 과업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과업이기도 하다. 이때 시적 자아의 신념에 찬 자세로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려는 극한 상황에서의 결의가 황홀한 '무지개'로 인식된 것이다. 절망으로부터 솟아났고, 절망으로부터 불붙은 육사의 구국에의 사명 의식이 기쁨으로 융합된 것을 읽을 수 있다.”

(신동욱. “한국 서정시에 있어서 현실의 이해”. 『우리시의 역사적 연구』. 새문사. 1981, 49~51면)

신동욱 교수의 해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겨울을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로 해석한 부분이다. 신 교수는 시적 화자와 겨울을 대립된 적대관계로 해석하면서, ‘강철’로 만들어진 ‘무지개’라는 것이 움직일 수 없이 견고한 ‘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을 더욱 확대시켜서 일제 파시즘의 확대와 이에 대항하는 시인의 비상한 결단이 이 시구에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해석과 비슷한 시각은 김종길 교수의 분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시의 ‘마지막 행이 보여주는 〈겨울〉의 이미지는 특이하고도 독창적이며, 아마 육사의 시에 있어서도 가장 독특한 이미지에 속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육사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간 시인이라면, 그의 삶은 바로 「절정」에서 궁극적인 시적 표현을 얻은 셈’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절정」은 하나의 한계 상황을 상징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한 발자국의 후퇴나 양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운 계절〉인 겨울, 즉 그 상황 자체에서 황홀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황홀은 단순한 도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철과 같은 차가운 비정과 날카로운 결의를 내포한 황홀이다.”(“육사의 시”.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181~182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동욱 교수의 경우나 김종길 교수의 경우보다 더 분석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것은 김재홍 교수의 경우이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라는 이 시의 결구는 무수한 상황과의 부딪침 끝에 자기 극복의 치열한 몸부림의 절정에 도달하여 운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성취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비극적 자기 초월의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구절은 오랜 방황과 갈등 끝에 마침내 자아 발견을 성취하고 다시금 묵묵히 삶의 본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위버멘쉬의 모습을 형상한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겨울>이 표상하는 현실 인식이 <강철>이라는 광물적 이미지리의 대결 정신과 결합하고 이것이 다시 <무지개>가 상징하는 예술 의식으로 탁월한 상승을 성취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이 구절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운명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육사 이원록”.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275면)

김재홍 교수의 해석은 ‘비극적 자기 초월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겨울’을 현실 인식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의 두 분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강철’을 광물적 이미지리의 대결정신으로, 그리고 ‘무지개’를 예술 의식으로서의 탁월한 상승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시 이 시를 놓고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의 해석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어딘지 석연치 않다. 일오 선생께서도 아마 이 같은 느낌을 떨치지 못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기에 일오 선생은 시어의 의미에 대한 ‘지나친 시적 해석’이라는 말로 불만을 표시하셨던 것이다.

4.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라는 마지막 구절을 다시 살펴보자. 이 구절에서 ‘—가 보다’라는 말은 화자의 입장과 판단을 표시하는 담론의 징표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제거하고 보면, 이 시구의 담론적 진술 내용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연구자들도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이 구절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를 놓고 ‘겨울=무지개’라는 은유관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무

지개'를 강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이 시구를 통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안고 안기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겨울은 무지개다.
- (2) 무지개는 강철로 되었다.

이 두 개의 문장에서 (1)은 객관적 사실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겨울'과 '무지개' 사이는 은유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 은유관계는 쉽사리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만큼 비약이 심하다. (2)의 경우에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강철로 만들어진 무지개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겨울'과 '무지개'와 '강철' 사이에 어떤 의미상의 연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 구절의 해석 자체가 정한숙 선생의 지적대로 지나치게 '시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이 구절의 해석 방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자 한다. 우선 '강철'과 '무지개'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새롭게 규정해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어 사전을 보면, '강철'은 독룡(毒龍)을 의미한다.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큰 뱀을 강철이라고 일컫는다. '강철이 지나간 데에 봄 가을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농사철에 알맞게 비가 내리지 않고 한발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흔히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큰 뱀 강철이가 심술을 부려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철이 간 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봄가을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황폐해진다. 물론, 이같은 황폐를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대개 인정한다. 봄 가을이 없다는 것은 결국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겨울'이라는 원관념과의 바로 이같은 의미와 서로 상통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지개'라는 말이다. '무지개'와 유사한 말 가운데 '무지기'라는 말이 있다. '무지기'는 대사(大蛇), 즉 큰 뱀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이 단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내 고향인 충청도에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

던 말이다. 구한말에 게일(H. Gale)이 펴낸 우리말 사전에도 분명히 '무지기(무직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고, 그 뜻이 큰 뱀으로 풀이되어 있다. 이 단어와 유의적인 관계를 이루는 '이무기'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시에서 '무지개'를 '무지기'의 오식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시에서 '무지개'라는 표기는 1940년 1월 잡지 「문장」에 이 시를 발표한 때부터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지개'로 이미 처음부터 표기된 시어를 굳이 '무지기'로 바꾸어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는 또다른 증거가 있다. 경상도 지역 방언에서 '무지개'를 뜻하는 말이 '무지기'로 나타난다. 이희승 선생의 국어대사전에도 '무지기'는 경상도 지역 방언으로 무지개를 뜻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시인은 이 시구를 '무지기(큰 뱀)'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상도 방언에서 '무지기'가 '무지개'를 뜻하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에 익숙한 어떤 편집자가 '무지기'라는 말의 본래 뜻이 '큰 뱀'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를 '무지개'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 시인 이육사가 경상도 태생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문제가 있다. '강철로 된'에서의 '된'이라는 동사이다. 보조동사라도 쓰이지만 이 시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 (1) A를 B로 만들다(원료)
- (2) A가 B로 바뀌다(변화)

위의 (1)의 경우를 이 시구와 결합시켜 보면, '겨울은 강철로 만든 무지개'로 읽을 수 있다. 기왕의 연구자들은 모두 겨울=무지개라는 비유적 관계를 인정하였고, '무지개'가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비유와 언어적 비약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언어적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대단한 시적 상상력의 소산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육사와 같은 시인이라면 이같은 비상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2)의 경우를 이 시구에 연결시켜 보면, '겨울은 강철로 변한 무지개'가 된다. 여기서는 겨울=무지개라는 은유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겨

울=강철이라는 의미 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무지개>강철'의 관계가 가로놓인다. 이같은 관계를 놓고 여기에 '무지기(큰 뱀)'와 '무지기(무지개)'의 의미 관계의 혼란 가능성을 덧붙여 인정하게 된다면, 이 시구는 결국 '겨울은 독룡(강철)으로 변해버린 큰 뱀'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은 '강철이 간 데 봄가을이 없다'는 속담처럼 계절의 속성과 연관된 담론의 시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구절이 매서운 겨울을 '봄가을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독룡의 흑독한 횡포와 그로 인한 계절의 황폐'에 비유한 것이라는 언어적 해석에까지 이를 경우, 우리는 시인이 느끼는 시대에 대한 참담한 절망의 극한을 이 구절에서 그대로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이같은 시구의 새로운 해석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강철로 된 무지개>와 같은 언어의 미로를 찾는 이같은 지적인 모험은 문학하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희열에 속하는 것이므로...